

투데이 칼럼

북중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정복규 논설위원

북한은 올해 러시아와는 군사 협력을,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꾀하면서 자신들의 우호 세력을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락제(자오러지) 동지와 '조중 친선의 해'를 계기로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강화할 데

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나, 9월 북한을 찾은 류귀중 국무원 부총리보도 서열이 높다.

그런데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밀착되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좀 줄어드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

북중 간 방문 인사의 급이 높아지면서 양국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고 6월 평양에서 있었다. 이후에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급 수준의 고위급 북중 간 교류는 이번 자오러지 정치국 상무위원장 방북이 처음이다.

만약 올해 안에 북중, 북러 정상회담이 있거나 성사된다면, 김 위원장은 든든한 북중러 연합을 과시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자오러지 위원장의 방북 계기로 북중 간 경제 협력 방안이 논의됐을지도 관심사다.

중국 친선 방문 대표단이 경제 행보를 보인 건 이례적이다.

북한과의 관계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을 북한과의 모든 교류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공격 상황을 가경해 도상훈련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간 함미는 2013년 처음 작성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해 왔다.

하지만 작성한지 10년이 넘는 만큼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사설

요양병원 항생제 처방 문제

요양병원 내 항생제 사용량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3분의 2 정도는 적절한 처방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상생활 능력이 크게 떨어진 환자일수록 항생제 사용량이 많았다. 전국 요양병원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계통별 항생제는 퀴놀론과 3세대 세팔로스포린 등이다.

특히 일상생활 능력이 크게 떨어진 환자일수록 항생제 사용량이 많았다. 전국 요양병원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계통별 항생제는 퀴놀론과 3세대 세팔로스포린 등이다.

있다. 카바페넴 사용이 늘면 카파페넴에도 듣지 않는 내성균이 출현할 가능성이 커진다.

요양병원 의사의 88%는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해 사용 관리 중재 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정 사용에 대한 보상과 요양병원 맞춤형 감염질환 지원서 개발 등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달라진 씬씀이

청년들의 소비 행태가 바뀌고 있다. 절약은 하되,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품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1월 19만 원이던 외식비 지출이 올해 1월엔 1만 9천 원 정도로 대폭 줄었다.

어느 손해보험사 여행자보험 가입자 중 72%가 2030이고, 이삼십대 KTX 승차 인원도 10% 늘었다.

여행 관련 지출이 4% 증가했다.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여행 경

험들을 공유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청년층이 최근 적극적으로 돈을 쓰는 또 다른 분야는 투자다.

노동 수익으로 나중에 집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증권사 집계에서도 올 1분기 20·30세대 해외 주식 거래액은 지난해보다 57%, 국내 주식은 12% 증가했다.

가상 자산 등 가격 변동성이 큰 투자에도 이전 세대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독자재언

원금 보장, 고수의 창출로 유인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 각별한 주의 필요

최근 유명인을 사칭하여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창출한다며 거짓 정보로 투자자문을 하면서 투자를 유도하여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주식 리딩방 피해 관련 상담 건수는 2018년 7625건에서 지난해 1만3276건으로 최근 5년간 2.5배나 뛰었으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상자산 투자사기 관련 피해 접수 건 중에 리딩방 유형이 26.5%로 가장 많았다.

당 투자금액은 2019년 408만 원 수준이었으나 2023년 4월에는 830만 원으로 2배 가량 늘어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불법 리딩방의 사기유형은 SNS 및 방송플랫폼을 통한 불법 영업 및 투자사기(투자자문업

자의 불법행위, 방송플랫폼을 통한 불법행위, 유명인 사칭 사기, 주식 종목 게시판을 통한 사기, 문서 위조를 통한 사기), 증권 불공정거래(비상장주식 부정거래, 시세관여형, 시장교란 행위)가 대표적이다.

회원 유치에 고수익 등 허위·과장 광고하면서 일정한 회원료를 지급하면 유망한 주식 종목을 찍어주겠다는 식으로 적게는 월 30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 받고, 회비에 따라 무료체합방, 일반회원방, VIP 종합방, VVIP 수익 실현방 등 여러 방이 나뉘는 구조로 이들은 처음에만 잠시 투자자들에게 눈먼 돈을 쥐여주고 이후 유료 회원료를 갈취하며 본인들의 이득을 차렸다.

리딩방 의심될 때에는 △투자 조언 및 정보제공자가 자격을 갖추었는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신고된 유사 투자 자문업자인지 확인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하고, △방송 플랫폼, 공개 채팅방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

리딩방 관련 피해구제 및 제보 방법은 불법 영업 및 투자사기에 경찰청, 금융감독원에 불공정거래행위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리딩방 관련 서비스 해지 및 환불 관련 분쟁 및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에 제보하면 된다.

일확천금을 기대하면서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리딩방 사기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김대근고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 순경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